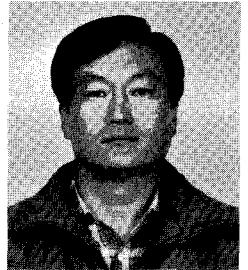


나의 제언/ 육계산업 이렇게 해야 발전한다.

구심점을 통한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할 때



엄재국
이천육계 분회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지난 한해는 정말 이 말이 실감나는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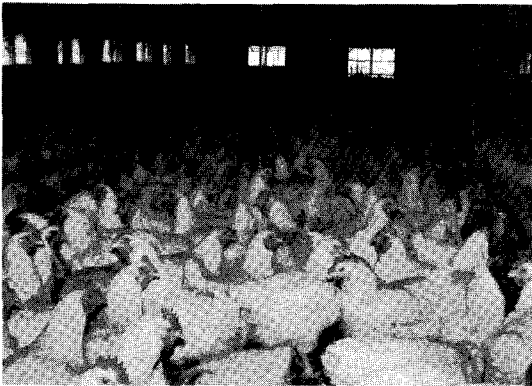
왜냐하면 육계경기 전망이 전년도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끼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의외로 희망의 서광이 잠깐씩 비추어 파도타기를 잘한 사람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전년도만 하더라도 계열화에 대해 기존의 생산자로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도 더 생겼고 기업형태의 것도 더 알려져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활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살고 있는 주변지역에서는 금년

은 돌이켜보고 싶지않은 악몽과 같은 한해였음을 또한 기억하게 된다. 바로 불법 농지전용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심지어 몇 명의 구속, 수감되는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태가 진정되어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나의 중요한 난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에 대한 염려이다. 처리장을 합법적으로 준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는 것도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육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축종에서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



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업계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지난 10월 개최된 양계박람회는 지치고 목마른 양계인에게 한사발의 시원한 얼음냉수와 같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귀한 청량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전시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고 또 협회의 행사에 관심없는 상당수 양계인들의 무관심이 가슴아픈 일이긴 하였지만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수준 높게 치루어 냈다는 것은 우리 생산자들의 의지가 강하고, 모든 수준이 놀라게 향상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가 공개적으로 천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계업계가 나아가는데 내적 혹은 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즉 외적으로 수입 개방이나 내적으로 농지문제, 건축문제, 축산폐수 처리 등에 대한 많은 새로운 시설을 위한 투자 등이루 다 열거 할 수 없는 문제들에서 솟아날 구멍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혼탁한 현대의 세대에서도 축산인은 동물을 상대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순수하고 정서가 남아 있으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서의 테두리내에서 결코 급하지 않게 안정적인 발전을 도

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사회변화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구심점을 통한 단합된 목소리가 더 필요하고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일부 양계업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주변의 동업자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만을 모색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부의 축적에서는 성공한다 할 지라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장래를 내다본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양계업에 대한 주변 지식의 축적에 힘써야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양계 잡지의 내용을 철저히 숙독해서 앞으로의 갈 길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다. 간혹 게재되는 정부 관계자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들, 선진국가들의 양계업에 대한 정보, 세무지식, 농지와 건축법에 대한 것 등 기타 실제 생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알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살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맞이할 92년도의 육계경기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금년과 마찬가지로 희망은 있다. 결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서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어 몇몇 도계장을 인수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것은 정말 같은 양계업자로서 쌍수로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클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앞에 놓인 문제들은 많지만 희망을 갖는다. 이유는 우리 육계인들이 저력있는 사람들임을 믿기 때문이다. **양계**

